원하는 게 능력인가 동행인가?

(역대상 21:1~17)

1.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3.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4.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빼 만한 자가 백십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빼 만한 자가 사십칠만 명이라
6.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7.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매
8.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원하는 게 능력인가 동행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원하는 게 능력인가 동행인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로 유학을 갈 때에 갑자기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유학생들은 독일 문화원에서 일정 수준의 독일어를 이수하고 그 증서를 학교에 보내야 입학 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저는 갑자기 독일 유학의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제 독일어 실력은 대학 1, 2 학년 때에 독일어를 배운 것과 그 이후에 독어 신학 강독에서 몇 페이지 정도 읽어본 실력뿐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독어 실력으로는 사실 허가도 나오지 않을 것인데 괴팅겐 대학에서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독일어를 배우고 신학박사학위과정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세 개의 고전어인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필수입니다.
또한 저는 지도 교수님을 선정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에버하르트 부쉬라는

교수님께 의뢰하자 “내가 너의 실력을 모르니 쓰고 싶은 논문에 대한 개요를 써 와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너의 능력과 박사학위가 가능한지 가늠해 보겠다.”라고 하셔서 그것을 독일어로 써야 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겨우 써내고 논문 주제가 결정되고서야 옆의 동료 목사님들이 고전어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 목사님 중에 저와 짝이 되어 유학시절을 보내신 분이 지금 연대에 계시는데 그분이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린트로 공부하고 계셔서 그것을 다 복사해서 얻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보통 라틴어를 통과하기 위해 1년을 배우고 방학 때까지 공부를 하여 방학이 끝날 때에 시험을 봅니다. 라틴어 원전에서 뽑은 글이 제시되면 그것을 3시간 동안 번역해서 써야 하는데, 사전이나 어떤 책을 참고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제대로 찾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두시험을 보는데 라틴어 원전에서 뽑은 종이쪽지를 놓고 교수님과 마주 앉아 독일어로 해석하고 그 의미와 질문에 대답하여야 하는데 두 달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거의 4학기를 준비하는데 비해 저는 겨우 2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통과만 하는 것에 비해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노르웨이 출신의 여자 교수님을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성경 사무엘서와 요나서였던 것 같은데 펴더니 읽고 해석하게 한 후에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는데 산상수훈이 나와서 그것으로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며 시험을 봤습니다. 헬라어는 1년 코스였고 히브리어는 한 학기 코스로 적어도 1년 반이 걸리는 과정을 제가 6개월 만에 다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고전어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부지런히 해서 독일학생들도 못하는 일을 해냈다는 칭찬이었습니다. 그 때에 제일 많이들은 이야기가 저에게 어학이 소질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잊어버리고 사전을 보고 겨우 이해할 정도인데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에 “제가 어학에 소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구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때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는 그 말을 으레 하는 이야기인 줄로만 들었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학적 소질이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까?

사실 영어를 잘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저처럼 배울 기회가 많았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카투사로 있으면서 37명의 미군들과 같이 생활을 했었기 때문인데 오히려 저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만약 또 영어나 고전어를 다시 배워서 무언가 해야만 될 시간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안에 있는 능력이나 소질을 발견하기를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

면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원조를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임을 세월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까지 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제까지는 다윗의 사적에서 암울한 부분을 다 제외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사건이라든지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형제들 간의 분열입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이 이복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리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 삼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들을 다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어두운 역사에 속한 사건들 중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얻어서 온 나라에 온역이 임하여 하루 사이에 무려 칠만 명이 죽는 일이 생겼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민수기나 출애굽기에서 직접 인구조사를 명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인구조사에 진노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된 정복 전쟁의 승리를 보아 왔습니다. 승리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다보니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삶은 얼핏 대단하고 바람직해 보이는데 여기에 심각한 영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 같이 당연한 법칙이 되어버린 승리가 이어지자, 다윗은 인간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죄적 욕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욕구로 모든 인간이 갖고 태어난 암적 원죄의 체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는 밑천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도 밑천이 필요합니다. 그 독립하기 위한 밑천이 바로 나의 고정적 능력이나 지속되고 있는 소질 혹은 일정한 법칙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껄끄럽게 여기게 하고 독립하게 하는 밑천이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하심에 의해서 승리가 계속되다 보니 이것을 하나의 고정된 법칙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현상을 자신에 속한 요건이나 능력에서 발휘된 것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인구조사를 통해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 한 자가 백십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 한 자가 사십칠만 명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얻게 된 백오십만 명이 넘는 전쟁할 수 있는 숫자를 보고 그것이 자신의 승리의 원인이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욕

구를 지니고 있었고,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된 능력이나 지속되는 소질, 변함없는 법칙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재량껏 능력과 소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원하는 대로 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법칙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그 법칙대로 행동하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타락의 욕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합니다. 병행구절인 삼하24: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지시하셔서 다윗을 격동케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격동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식하고 행했을 리는 없지만, 죄적 체질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끌고 갔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벌어진 틈새에 사탄이 개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다윗을 이끈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발생한 악에 대해 사탄이 인구조사라는 아이디어를 붙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지속되는 승리를 법칙처럼 여기게 된 다윗에게 그 법칙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마음은 하늘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처의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80살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콩나물을 사더라도 할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사고 남은 돈을 할아버지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평생을 당신 주머니를 갖지 못하고 사셨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재량껏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남한의 문구 상권을 장악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집이 문구점과 연결된 곳에 계셨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께서는 평생 딴 주머니를 차보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능력과 소질을 원합니다. 아니면 내게 머물러 있는 고정된 지혜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과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달라고 할뿐,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내 주머니 따로 차기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다윗의 어두운 면을 기록한 이유는, 이 문제가 내일 하게

될 성전건축이 될 땅을 선정하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전건축의 의미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와 연관이 돼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시도 우리와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능력과 소질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공급이 주어집니다.
모세에게 바로 앞으로 나가라고 하실 때에도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시지만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천하의 대국인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가서 그들의 하부경제구조를 담당하던 이스라엘 노예 250만 명을 빼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그들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하나였습니다. 능력과 소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모세는 양치기의 모습 그대로 바로 앞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행1:8절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말씀에서 '권능'이라는 말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병 고치는 능력이라도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가치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도들에게 일어난 기적들도 하나님의 동행에서 나타난 것이지, 사도들이 따로 능력의 자기 주머니를 차고 능력을 꺼내 쓰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연전연승하다보니 그것을 마치 자연법칙처럼 느끼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근거를 자기 내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억울하게 죽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요압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다윗처럼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자연법칙 같이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가진 인구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사지백체 중에 이래저래 망가져가지만 어느 부분은 여전히 튼튼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흔이 되시도록 머리가 검으시고 관절이 튼튼해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 반대로 어떤 분은 쉰 밖에 안 되셨는데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심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부분에는 건강함이 고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백합화를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계절이 되면 꽃을 피우고 씨가 땅에 떨어졌다가 싹이 난다고

자연법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백합화를 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자연법칙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려져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맙니다.
다윗에게서 일어난 이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암적인 죄적 체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독립의 밑천은 내 안에 있는 고정되고 지속적인 능력이나 소질 여건 법칙과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법칙에 의거하여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조차 하나님과의 동행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본능적인 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장갑입니다. 장갑 자체에는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갑을 끼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장갑인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암적인 악한 욕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논문을 쓸 때에 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참고했지만, 요새는 인터넷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사전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모든 사전이 다 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주머니를 따로 차는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도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르기 위해서이고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반복하고 날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 마음이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내려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시고 이 삶이 단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내일의 삶을 제공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해야 하고 능력을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암적 악한 욕구가 들어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24시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고, 그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 사는 삶이 하루에도 24번뿐만이 아니라 1분에도 60번씩 반복될 정도로, 십자가 생활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